

원로과학기술자가 걸어온 한평생

石泉 金 東 一 박사



학회 · 클럽 창립 50平生 과학발전 외길

나는 대한화학회를 비롯해서 대한요업 총협회 · 한국요업학회 · 서울국제싸이언스클럽의 창립에서부터 이 모임의 활동에 깊이 관련을 맺어왔다. 대한화학회는 1946년 7월 창립되었다. 나는 그 때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대한화학회 창립에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그 후 편집간사 대리 · 회계간사 · 부회장을 거쳐 1951년 제4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부산 피난시절 화학회장 맡아

그 후 5·8·11·12 및 13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73년부터 명예회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대 회장에는 이태규(李泰圭), 부회장에 김학수(金學洙), 간사에 회계 안동혁(安東赫) · 재무 김용호(金勇虎) · 편집 이승기(李升基)가 선임되었다. 김용호와 이승기는 6.25 때 월북했다. (존칭 생략) 52년 내가 제4대와 5대 회장을 연임하였을 때의 부회장은 조광하(趙廣河) · 전풍진(田豐鎭), 간사는 서무 김태봉(金泰鳳) · 최상업(崔相業) · 회계 남기동(南基棟) · 편집 전민제(全民濟) · 성좌경(成佐慶) · 최규원(崔

圭源)이었다. 부산 피난시절이어서 총회는 부산 시청과 서울대 공대 부산가교사에서 개최되었다. 사무소는 이화산업(理化産業)〈주〉내에 두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화학 학술용어 제정위원회를 발족했고 대한화학회지

제2권과 3권을 발행했다. 60년 11월 제8대 회장에 취임했을 때 부회장은 이범순(李範純) · 김상열(金相悅) · 박하옥(朴夏郁) · 민관식(閔寬植) · 성좌경이었는데 학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간사장제도를 도입했다. 초대 간사장에 김순경(金舜敬)이 맡았고 간사에 총무 구정회(具廷會) · 재무 마경석(馬景錫) · 편집 한상준(韓相準)이 뽑혔다.

62년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임되고 2대 간사장에 최상업, 간사에 총무 오준석(吳浚錫) · 재무 김순혁 · 편집 한태희(韓泰熙)가 맡았다. 대한화학회는



▲ 원고 집필중 잠시 포즈를 취한 김동일박사

간사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재정사정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61년부터는 학회지 1회에 「화학과 공업의 진보지」(이하 진보지)를 창간해서 연 2회 발간했다. 62년에는 학회지 2회와 진보지 3회를 발간했다. 이무렵 경남 · 부산 · 전남 등 지부가 결성되었고 화학교육위원회와 교과과정심의회가 발족되어 한국화학초록사업이 촉진되는 등 학회가 눈에 띄게 활성화 되었다.

63년 나는 미국에 체류중이던 김순경 박사와 함께 런던에서 열린 제22차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합(IUPAC=Inter-



▲ 지난해 9월 14일 개관식을 가진 한국과학기술회관 전경

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총회에 참석해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힘을 쏟았다. 당시 세계는 미·소 냉전체제 속에 국제 학술단체 내에서도 체제의 갈등이 있었다. 소련의 반대를 사전에 무마하기 위해 총회 전에 회장과 사무총장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협조를 부탁했다. 이것이 주효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는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66년 10월부터 11·12·13대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는데 11대 때 부회장은 김태봉·이범순·최상업이었고 67년도 간사장은 김영생(金永生), 간사는 총무 사공열(司空烈)·재무 정기현(鄭基現)·편집 이태영(李泰寧)·박용완(朴容浣)이었다. 이 때부터 화학회지와 진보지가 연 4회씩 발간되기 시작했다.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리넨(Fedor Lynen)박사를 초청,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했고 최초의 석유화학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석유화학에 대한 관

심을 높였는가 하면 화학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민관식)를 발족해서 회관건립에 착수했다. 68년도 간사장은 한상준, 간사는 총무 정재기(鄭在基)·재무 노익삼(盧益三)·편집 김준용(金俊容)·최춘언(崔春彦)이었다. 이때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알리(Hubert Alyea)교수를 초청, 강습회를 열고 부식방지세미나 등 산업계와 관련을 맺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12대 회장 때 부회장에는 11대 부회장이 모두 유임되고 성좌경이 신입 부회장으로 영입되었다. 간사

장은 심정섭·간사는 총무 주충노·재무 김동선(金東善)·편집 이익춘(李益春)·변형직(邊衡直)이 맡아 수고했다. 이때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의 렘보르트(Heinz Rembort)를 비롯해서 이태규·박달조(朴達洵)박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70년도 간사장에는 심문택(沈汶澤)·간사에 총무 윤승민·재무 정운수(鄭雲洙)·편집 김호징(金鎬徵)·안영옥이 맡아 수고했다. 이때 미국 퍼듀대학의 브라운(H.C.Brown)교수 등 저명 외국 학자들을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전북지부가 결성되었고 화학회관 상량식을 가졌다. 71년 1월 13대 회장 때 부회장은 성좌경·전민제·최규원·최상업이었고 간사장에 마경석, 간사는 총무 김시중(金始中)·재무 김광모(金光模)·편집 정구순(鄭球璠)·문탁진(文卓珍)이 맡아 수고했다.

이 때부터 학회지와 진보지를 각각 6회씩 발간했고 화학회관을 준공했으며 학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국제학술

대회로 성대하게 치루었다. 대한화학회 25년사를 발간했고 노벨 수상자 리넨교수 초청강연 등 행사를 펼쳤다. 1972년 간사장은 한만운(韓萬運), 간사는 총무 박인원(朴仁源)·재무 백형배(白亨培)·편집 채영복(蔡永福)·김창은(金昌殷)이 맡아 수고했다. 이때 경남지부가 결성되었고 이태규박사 고회기념 논문집을 발간했고 프랑스 파리대학 교수이자 IUPAC 회장인 버나드(J·Bernard)박사를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나는 이 해 10월 대북(臺北)에서 열린 중국화학회 40주년 기념대회에 학회 대표로 참석해서 임운산(林雲山)회장의 배려로 첫 축사를 하는 영광을 누렸고 한국의 석유 화학공업에 대한 특별강연도 했다.

창립25돌 맞아 화학회관 준공

학회지는 71년부터, 진보지는 73년부터 각각 격월로 발행하기 시작해서 진보지는 90년, 학회지는 93년부터 월간지로 바꾸었으며 진보지는 92년부터 이름을 「화학세계」로 바꾸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74년 「화학교육」을 창간해서 연 3회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76년부터 계간, 96년부터는 격월간으로 발간했다. 80년 계간지로 창간한 영문학회지(Bulletin of the Korea Chemical Society)는 83년부터 격월로 발행하고 있으며 91년 창간한 영문 「의약화학지」(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Chemistry)는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나는 66년 7월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동혁박사 화갑(華甲) 기념사업인 화학회관건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회관건립추진 위원장은 67년 내가 회장에 재취임하게 되어 민관식씨가 맡아보게 되었다.

민위원장은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곧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민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기획담당 이종근·총무담당 최상업·재무담당 전민제, 상임위원으로 기획 마경석·총무 한만운·재무 성장자·섭외 오원철·최 용·김영생·한태희 등으로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처음 모금 계획은 임대료 1천7백만원을 포함, 4천7백만원이었다. 민관식위원장은 67년 2월 당시 박충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협조를 얻어 국내 화학관계 생산업체 대표들을 뉴 코리아호텔에 초대하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찬을 요청하는 한편 화학회와 화공학회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전개한 결과 23개 회사와 1백75명의 회원들로부터 모금 목표액의 약 75%의 해당하는 찬조금을 거둘 수 있었다. 화학회관은 이를 바탕으로 71년 4월 마침내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34~35번지에 대지 1백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백50평의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다. 재단법인 대한화학회관으로 등록을 필한 회관에는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가 입주했고 해마다 양 학회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나는 92년 10월 26일 이태극박사가 작고하자 장의위원장이 되어 대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정에서 한국화학인장을 엄수한후 유해를 서울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과학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이태극박사가 최초의 일이었다.

대한화학회는 처음 1백여명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종신회원 1천9백명, 정회원 1천1백46명, 학생회원 1천5백2명을 거느리는 대학회로 발전했다.

나는 48년 7월 대한요업총협회 3대 회장에 취임해서 61년 6월까지 13년간 그리고 57년 3월 한국요업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62년 3월까지 5년간 연 18년을 우리나라 요업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 대한요업총협회 전신은 조선요업기술협회였다. 조선기술협회가 탄생된 것은 광복 직후인 45년 9월 10일이었는데 그 후 산·학협동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업계가 이에 동참하여 대한요업총협회로 발전되었다.

57년 요업학회 초대회장 피선

대한요업총협회 초대 회장은 안동혁 중앙공업연구소 소장이었고 2대 회장은 신윤경(申允卿) 중앙공업연구소 요업부장이었다. 나는 3대 협회장을 맡아 산·학협동에 힘을 쏟았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요업학회가 87년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 학회사무실을 가질 때까지 30여년간을 대한요업총협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자체 건물을 갖지 못한 두 단체는 서울 동승동 중앙공업연구소·서린동 조선내화공업조합 귀속 건물·충무로2가 요업회관·대현동 현 요업회관으로 옮겨 다녔다.

협회장은 그후 업계 출신의 이기영(李基榮·4대)·현정주(玄正柱·5대)·손열호(孫烈鎬·6대)씨로 이어졌다. 7대 회장부터는 다시 학계의 이종근(李鍾根)박사가 14년간을, 82년 선임된 8대 회장인 남기동(南基棟)박사가 현재까지 14년간 협회를 이끌고 있다. 부산에 피난중이던 우리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직후인 53년의 일이다.

거액에 달하는 일본 도자기가 대량 유입되어 말썽을 빚은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일제 도자기 밀반입 사건이다. 일본 도자기공장에 쌓여 있던 대접과 사발 등 일본에서 처분할 수 없었던 도자기가 모 상인에 의해 헐값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이 발단이다. 당시 유입물량은 국내 도자기 생산의 반년분에 해당되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국내 도자기 업계가 들고 일어나 이를 문제삼게 되었다. 막 짝트기 시작한 국내 도자기 업계가 이로 해서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된 때문이었다. 국내 도자기 업계는 일본에서의 도자기 유입을 막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는 등 결사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에 업계는 물론 학계도 힘을 모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제 도자기 반입을 하던 업자는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내 업계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내가 대한요업총협회 회장으로 있었던 때의 일이다. 하루는 경무대에서 연락이 왔다. 의아한 생각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대통령의 첫마디가 ‘그 도자기를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업자를 설득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로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 나의 이 말에 몹시 언짢은 표정을 하시며 미국인 경제고문을 만나보라고 했다. 고문을 만났더니 도자기를 수입하면 관세수입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그 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요업계는 57년 윤크라(UNKRA)의 원조로 인천 판유리공장과 문경 시멘트공장의 가동을 계기로 기술과 시설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서울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도 창립

60년부터 공과대학에 요업학과가 설치되었고 64년 마침내 학회지가 창간되어 학술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68년 9월 21일 창립된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SISC=Seoul Inter-

national Science Club)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이 클럽의 설립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나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종진(李宗珍)박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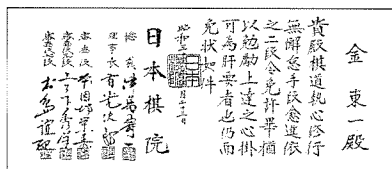
일본 경도제대 농화학과를 나온 이박사는 서울대 문리대 생화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나에게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로터리클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나는 당시 학술원 회원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로터리클럽은 규약이 까다롭고 매주 회합을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으로 발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에 합의했다.

우리는 명칭을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으로 정하고 이같은 뜻을 김윤기(金允基) 과총 회장·김기형(金基衡) 과학기술처 장관·조병준(趙炳俊) 쌍용양회(주) 사장에 전해 모두로 부터 찬동을 얻어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창립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그 해 9월21일 세종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채택에 이어 임원을 선임했다. 회장에 조병준, 부회장에 서정익·김용우, 이사장에는 김동일, 상임이사 이종진·유희춘·유원상·이태현, 이사에 김선집·김성진·김수근·김영생·김창규·박승엽·신무성·안경모·원용석·유중·이상규·이춘근·전민제·정문기·최경렬, 감사에 김해립, 사무총장에 조경서로 정했다. 클럽의 목적은 『①산업계와 학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산학협동의 성과를 거둔다 ②해외의 과학기술 관계자와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한다 ③국내 과학기술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물교류의 매체로 한다』에 두었다.

클럽의 특징은 종래의 과학기술 단체와 달리 회원의 영입을 일반 사회인사들에게 개방하여 과학자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친목과 함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사회 발전에 기여코져 했다는 점이다.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은 이같은 운영 방침에 따라 과학자와 정치인·경제인·문화인·인문사회학자 등이 참가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과학기술을 이해시켜 정책에 반영케 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클럽은 여러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례 강연회와 연구소 시찰 등 프로그램을 가졌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건강을 위해 야유회와 바둑과 장기·골프 등 모임을 가졌다.

나의 바둑 실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랑방에서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하여



▲ 필자가 일본기원에서 받은 바둑2단 면장

한국기원과 일본기원 공인 아마 2단에 올랐다. 일본기원으로부터 면장을 받게 된 것은 동경대학 동기인 기쿠지(菊池眞一)박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기쿠지 박사는 바둑실력이 나와 비슷했는데 일본기원 공인 아마 초단이었다. 나도 공인을 받고 싶다고 하니 일본기원의 기사를 소개해 주었다. 동경학사회관에서 지도 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일본 아마 2단 실력을 평가받아 그분의 추천으로 일본기원으로부터 자격증을 정식 전달받게 되었다.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 회원은 처음 68

명으로 출발해서 95년 현재 1백1명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다. 그동안 회장은 초대 조병준에서 김동일·오정수(吳楨洙)·김용우(金用雨)·김기형·유홍진(兪興鎭)·노덕삼(盧德三)·우형주(禹亨疇)·신무성(愼武誠)·이춘근(李春根)·이주걸(李柱傑)로, 이사장은 김동일·권필주(權弼周)·이덕기(李德基)·박남석(朴南錫)으로 이어졌다. 나는 현재 조병준·이춘근과 함께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 명예회장으로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新館)이 작년 9월 지하 4층, 지상 13층, 총 8천여평의 웅대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준공된 것은 실로 무(無)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적이고 감개무량한 큰 경사인데 이를 위하여 민관식(閔寬植)회관건립기성회장, 성낙정(成樂正) 당시 과총회장 및 정조영(鄭助英)회관건립추진위원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총 2백50억원이란 거액의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동분서주하던 모습을 눈익히 보아왔던 필자는 과학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의 열성과 슬기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

올해 88세 ... 과총 상임고문 활동

나는 73년부터 과총의 상임고문으로 있다. 과총이 그간 나의 활동에 대해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아침 10시경 과총 사무실로 나와 신문을 보고 과학기술계의 소식도 듣게 된다. 올해 내 나이 88세이니 살만큼 살았다. 그러나 언제 그 많은 나날들이 흘러간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동안 변변치 않은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67